

조선 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鄭經) 부자*

정 응 수**

(e-mail: chunges@nsu.ac.kr)

目次

1. 서론
 2. 『실록』에 나타난 진인, 정진인, 해상진인
 3. 정경과 정진인
 4. 정경의 아들과 해상진인
 5. 결론
-

1. 서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정진인(鄭真人)이 계룡산에 도움을 정하고 새 나라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즉 이성계가 만든 조선을 없애고 새로운 정씨왕조를 세운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정감록(鄭鑑錄)』을 떠올릴 것이다. 『정감록』은 조선왕조의 멸망과 계룡산에 도움을 받게 될 정씨 왕조의 출현을 예고한 책이다. 좁은 의미로는 「감결(鑑訣)」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 「무학비결(無學秘訣)」 「도선비결(道說秘訣)」 등 10여종의 비결서를 더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계의 카운터 파트너로 김씨나 이씨가 아니고 정씨가 진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민중들의 집단적 기억 때문이라고 한다. 즉 백성들은 이

* 이 논문은 201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학(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 죽은 정몽주,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으나 방원에게 제거된 정도전, 선조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정여립, 영조 때 반란에 연루된 정희량 등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는 것이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집단기억을 형성하는데 정경(鄭經, 1642-1681) 부자도 한 몫 거들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경²⁾은 명청 교체기에 동아시아를 무대로 반청복명운동을 펼치고, 『고쿠센야카텐(国性爺合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의 아들로 1642년 태어났다. 1662년 정성공이 죽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반청복명운동을 전개하며 1664년에는 타이완에 동녕왕국(東寧王國)을 세웠다. 1673년 삼번(三藩)의 난이 일어나자 적극 동조하여 한때 복건성 일부를 장악하기도 했다. 1680년 대륙의 거점을 모두 상실하고 타이완으로 귀환하여 이듬해 1월 39세의 아까운 나이에 죽었다. 내분을 거쳐 그 뒤를 이은 것은 12세의 차남 정극상(鄭克塽, 1670-1717)으로 불과 2년만인 1683년 청에 항복하고 만다. 이로써 3대 23년 만에 정씨 타이완 정권은 막을 내린다.

그런데 이 삼번의 난 이후 『실록』에 정경에 관한 기사가 급증한다. 정경과 관련된 『실록』 기사는 총 65건인데 삼번의 난 이후의 기사가 무려 62건이나 된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전까지는 대개 표류민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정씨 일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정도였지만,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즉 조선이 정경의 군대와 협력하여 청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과, 정경의 군대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청나라를 섬기는 조선을 정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

1) 백승중,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240-242쪽. 이에 관해서는 김탁(『정감록』, 살림, 2005, 68쪽)과 김우철(「조선 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真人) 수용 과정」, 『朝鮮時代史學報』 60호, 99쪽) 등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이라 부른다)에서는 그의 이름을 정경, 정금(鄭錦), 정금사(鄭錦舍)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종이 정금을 정경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문자 고부사 유창이 ‘금’과 ‘경’의 중국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현종개수실록』, 현종 15년 8월 3일), 이는 적절한 답이 아니다. 경은 자(字)이고 금은 아명이다. 또 동래부사 조세환의 치계 중에 정금사란 말에 ‘일본 사람들이 정금을 일컬어 금사라고 하였으니, 맹자에 이른바 맹시사(孟施舍)라고 한 것과 같다’고 주를 달아 놓았는데(『숙종실록』, 숙종 6년 8월 3일), 이도 부정확한 것이다. 이 맹시사는 『맹자』 「공손추장구 상」에 나오는 옛날 장수의 이름으로, 맹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정금사라 하여 이름 뒤에 ‘사’를 붙인 것은 그가 관리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정성공이 용무제로부터 황제의 성인 주(朱)씨 성을 하사받았다 해서 ‘국성야(国姓爺)라 불리는, ‘야(爺)’는 신분이 있는 연장자에 대한 경칭이고 ‘사’는 그 자제에 대한 경칭으로 소야(少爺)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浦廉一의 「台湾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関係」(『広島大学文学部紀要』 3, 1953, 74쪽)를 참조.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록』 관련 기사는 모두 조선 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 탑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한 것이다.

다. 이 때문에 청이 산해관 밖의 방어 시설을 보수하고 군사를 증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한다. 또한 정경의 조선 침공설이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피난 행렬이 꾸러지는 등 조선 국내 정세도 매우 어수선해진다. 그러자 조선정부에 반감을 가진 무리들이 역모를 꾀하면서 이 정경의 조선 침공설을 이용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정경이 민중들에게 해상진인(海上真人)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해도진인(海島真人)이라고도 불리는 해상진인은 『정감록』의 핵심 내용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 남쪽 섬에서 나타난다는 정진인을 말하는데 이제부터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실록』에 나타난 진인, 정진인, 해상진인

여기서 잠시 정경과 해상진인의 관계를 고찰하기 전에, 새 왕조를 세울 사람을 가리키는 진인, 정진인, 해상진인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정도령이란 단어도 있지만, 이는 정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설명에 상당한 매수가 필요하므로 다른 곳에서 논하기로 한다.

1) 『실록』에 나타난 진인

먼저 ‘진인’이란 말이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28년(인조 6) 12월 18일이다. 이는 전 좌랑 윤운구가 역모를 꾸민다고 남원 사람 송광유가 고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윤운구가 송광유에게 “나라가 망하려고 하여 진인이 이미 나왔다³⁾”고 했다고 한다. 여기서 진인은 나라가 망할 때 나오는 사람,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인은 허의란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허의는 양미간에 콩만한 검은 점이 있고 허리는 원통이고 배가 불룩하고 복서골(伏犀骨)로 임금의 상을 하고 있으며, 그가 천녀를 만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범상치 않은 용모의 아버지와 고귀한 신분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영웅의 출생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비한 출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하삼도를 지키면서 일본에 구원병을 청하려 했다는 부분이다. 임진왜란(1592-1598)이 끝난 지 30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임진왜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을 텐데 여차하면 일본에 구원을 요

3) 『인조실록』, 인조 6년 12월 18일.

청한다고 한 점이 그렇다. 아무튼 이 사건은 무고의 냄새도 있지만 역모사건이라 그냥 덮어둘 수도 없어, 윤운구 등은 유배형에 처해지고 고변한 송광유도 무고죄를 받았다. 그렇지만 진인이란 세상이 망하려고 하면 등장하여 새 세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진인이 허씨라는 것, 다시 말해 정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조선왕조가 망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는 이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조선 개국 초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예를 들어 1406년(태종 6) 6월 19일에는 설연 등의 중이 절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의 수를 줄인 것에 반발하여, “승왕(僧王)이 나라를 세워 이에 태평(太平)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참서가 있다는 말을 퍼뜨린 죄로 유배를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1426년(세종 8) 3월 20일에도 “종묘의 소나무에서 까마귀가 울고, 하늘에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 비가 오고 구름이 시커멓게 끼면, 이럴 때에는 왕조가 바뀐다.’는 말을 퍼뜨린 전 부사 김용생을 처벌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또 1507년(중종 2) 윤 1월 25일에도 도선의 『참기(讖記)』에 ‘10대를 전하여 국운이 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삼공을 시해할 모의를 한 조광보 등을 잡아 국문한 기사가 있다. 즉 조선은 개국한지 10대가 지나면 망한다고 도선의 참기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왕조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다만 설연의 사건은 설연이 승려였기에 조금 예외적이다. 그러던 것이 윤운구 사건에 와서 비로소 새 세상을 만드는 인물로 진인이 등장한 것이다.

2) 『실록』에 나타난 정진인

그렇다면 그 진인이 ‘정(鄭)’씨, 즉 정진인이란 단어가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인가? 1631년(인조 9) 2월 3일자 기사는 권대진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충청도 옥천의 조홍빈이 고발한 사건을 다룬 것인데, 여기에 정진인이 처음 등장한다. 권대진 등은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하늘의 변화도 참혹하므로 호남과 영남에 있는 여덟 대장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게 하여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고 한 다음, 가야산 아래에 사는 정한을 추대하여 인군으로 삼을 것이라 했다. 그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진인이라 부른다고 했다. 또한 1628년의 송광유 사건에서 허가의 아들이 비범하다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⁴⁾며 허씨 진인을 부정하고 정씨가 진인이라고 했다.

4) 김우철, 앞의 논문, 84쪽

물론 조선왕조를 멸망시키는 인물로 정씨가 등장하는 것도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이 이전에도 정씨가 삼한을 멸할 것이라는 내용의 참언이 있었다. 1411년(태종 11) 윤 12월 25일 『실록』을 보면 태종이 “옛부터 도참을 믿을 수 없다. 지금 보록(寶籙)의 설을 내가 믿지 않는다. 첫째는 ‘삼전 삼읍(三奠三邑)이 응당 삼한을 멸할 것이다.’하였는데, 사람들이 삼전(三奠)의 정도전(鄭道傳)·정충(鄭攄)·정희계(鄭熙啓)라고 하는데, 정희계는 제주와 덕이 없고 개국하는 데도 별로 공이 없으니, 이것이 과연 때에 응하여 나온 사람이겠는가?”⁵⁾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보록이란 어떤 사람이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는 글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목자(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三韓)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라 써 있고, 또 “비의(非衣)·주초(走肖)·삼전 삼읍(三奠三邑)”등의 말도 있었다⁶⁾고 한다. 이는 돼지띠인 이성계가 삼한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하늘의 운수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일화이다. 그러나 뒷부분의 이야기는 태종의 말을 빌리면, 이와는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가 된다. 즉 ‘삼전삼읍’ 이야기는 세명의 정씨가 삼한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미 조선 건국 초부터 정씨가 조선을 멸망시킨다는 참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여립 사건에서는 이러한 참언이 보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이보다 앞서 1백여 년 전에, 민간에 ‘목자(木子)가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난다.’는 참언(讖言)이 있었다. 여립이 요승(妖僧) 의연(義衍)과 모의하여 이를 옥판(玉版)에 새긴 다음 지리산 석굴 안에 간직하였다. 의연이 승도인 도잠(道潛)·설청(雪淸) 등과 산을 유람한다고 핑계하고 지리산에 이르러서는 ‘아무 방위에 보기(寶氣)가 있다.’하고 같이 가게 하여 옥판을 찾아내어 여립에게 돌려주니, 여립이 같은 동아리에게 비밀히 보여주고는 그 말을 누설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중략) 국초 이래로 참설(讖說)이 있었는데, “연산현(連山縣) 계룡산(鷄龍山) 개태사(開泰寺) 터는 곧 후대에 정씨(鄭氏)가 도읍할 곳이다.”하였다. 여립이 일찍이 중 의연의 무리와 국내의 산천을 두루 유람하다가 폐사(廢寺)의 벽에 시를 쓰기를, 손이 되어 남쪽 지방 노닌 지 오래인데 계룡산이 눈에 더욱 환하여라 무자·기축년에 형통한 운수 열리거니 태평 성세 이루는 것 무엇이 어려우랴 하였는데, 그 시가 많이 전파하였다⁷⁾.

정여립 사건을 다룬 『선조수정실록』 1589년(선조 22) 10월 1일의 기사이다.

5) 『태종실록』, 태종 11년 윤12월 25일

6) 『태조실록』, 태조 1년 7월 17일

7)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 10월 1일

먼저 계룡산이 정씨가 도읍할 곳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조선 건국 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홍만중(洪萬宗)의 『순오지』(1678)에, 태조가 계룡산 아래에 궁궐터를 보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이곳은 바로 정(鎭邑)씨가 의거할 땅이지 그대의 터가 아니니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여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 이런 전설이 과연 조선 초부터 알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⁸⁾. 그러나 이 기록으로 적어도 정씨의 계룡산 도읍설만은 조선 초부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목자망 전읍흥(木子亡鎭邑興)’ 즉 이(木子)씨가 망하고 정(鎭邑)씨가 흥한다는 참언도 정여립 사건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 말에는 이씨 대신 정씨가 나라를 세운다는 정씨왕조설이 존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씨는 아직 진인이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정진인은 1631년에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변란에서 항상 정진인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646년 안익신 모반사건에서는 최영의 후손이 중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진인이 점차 정씨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여, 17세기 말 이후 숙종조에 등장하는 각종 역모 사건에서는 정씨 진인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⁹⁾.

3) 『실록』에 나타난 해상진인

그러면 『실록』에서 ‘해도의 정진인’, 즉 ‘해상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인가? 1694(숙종 20)년 4월 1일이다. 이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하게 되는 소위 갑술환국을 다룬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 이제 조선의 국운이 끝나가므로 곧 해도에 있는 정진인이 육지로 올라올 것이므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즉 정씨 성을 가진 해상진인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거병을 하여 육지로 쳐들어와 조선을 없애고 새로운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민중들이 이렇게 진인의 근거지로 섬을 선택한 것은 당시 실제로 도서지역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지배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역모자나 수취 체제에 저항하는 양역 도피자, 신분질서에 항거하는 도망노비 등 저항세력이 총 집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¹⁰⁾. 또한 1755년(영조 31) 나주 께서 사건때 윤

8) 예를 들어 김탁은 『한국의 보물, 해인』(북코리아, 2009년, 157쪽)에서 당시에 이성계의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9) 김우철, 앞의 논문, 88쪽

지가 “무신년의 경우는 경술하게 육지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섬을 근거지로 삼는 것만 못하다.¹¹⁾”고 한 것을 보면 과거 역모사건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진인, 정진인, 해상진인이란 말이 언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는 물론 『실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이 말들이 실제로 사용된 것은 이보다 빨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씨에 의해 조선이 망할 것이라는 참언은 조선 건국 초부터 있었고 이후 세월이 흐르며 정진인설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다시 섬과 연결이 되면서 해상진인설로 변화된 커다란 흐름은 알 수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정경과 정진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3. 정경과 정진인

삼번의 난 이후 조선은 숙종 즉위 초부터 정경의 조선 침공설로 정국이 안정되지 못했다. 특히 1674년(숙종 즉위) 10월에는 정금이 이끄는 수군이 바다를 통해 산둥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나 산둥과 가까운 해서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경과 관련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일본은 쇄국을 단행하고 있었지만, 무역 상대국이었던 네덜란드나 중국의 상선을 통해 서양과 중국의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었다. 또한 동래의 왜관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는 왜관과의 교섭 현장에서 실무자로 활동했던 훈도·별차·소통사 등의 왜학역관이나 군관, 상인, 왜관을 출입하던 잡역부를 통해 수집되었는데¹²⁾, 수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에도막부에까지 보고되었다.

『화이변태(華夷變態)』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사(錦舍)의 활약이 컸습니다. 특히 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사가 일본과 인연이 있으므로 (일본이) 혹시 무구를 건네준 것인가? 또는 일본 군대의 백업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하고 조선에서 일본의 상황을 듣고 싶어 하

10) 한상권, 「18세기 前半 明火賊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497-498쪽

11) 『영조실록』, 영조 31년 3월 10일

12) 김강일, 「조선 후기 왜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9집, 2008, 190쪽

는 상태입니다. 이에 보고 드립니다.

금사가 이번에 활약이 컸기에, 오삼계가 금사에게 “이번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다면 (당신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조선에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금사로 말하자면 정씨이기 때문에 조선 6대성에 들어가고 (조선에서의) 유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 6백년 전에 승려 도선¹³⁾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말세에 관해 적어놓은 책에 5백년 쯤 뒤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선의 이러한 예언들도 감안하면 정말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래 것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¹⁴⁾.

1675년(숙종 1) 11월 8일 쓰시마도주가 막부에 보낸 「조선에서 들은 풍문에 관한 각서(朝鮮國ニ而風說之覺書)」란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이 보고서에서 첫째 일본이 정경과 손을 잡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조선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경의 조선 침공설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던 조선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조선정부는 정경군의 무장 상태나 전력, 일본과의 동맹 여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676년에도 문위사로 일본에 다녀온 역관 한시열에게 정경이 일본에 구원병을 청했는지에 관해 탐문하도록 시켰다¹⁵⁾. 그러나 정경 부대의 무장은 당시 타이완에 와서 탄약과 총기류와 같은 군수품을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벌이고 있던 영국 상인들로부터 조달받은 것이었다. 정성공에게 타이완의 거점을 빼앗긴 네덜란드는 타이완이나 중국과의 교역을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1670년 정경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다¹⁶⁾.

둘째 당시 도선(道詵, 827-898)이 지었다는 예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물론 통일신라 말기의 승려인 도선이 바로 뒤에 오는 고려가 아니고

13) 필자가 본 동양문고본 『화이변태』에는 이 부분이 ‘석씨도설(積氏道說)’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장본(林家旧蔵本, 紅葉山文庫旧蔵本)이나 『통항일람(通航一覽)』에는 이 부분이 ‘석씨도선(積氏道詵)’으로 되어 있다고 마쓰모토 신스케(松本真輔)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에 ‘석씨도선’으로 바로잡아 해석했다. 자세한 것은 松本真輔의 「韓國の預言書『鄭鑑録』と東アジアを駆けめぐった鄭經の朝鮮半島侵攻説」(『アジア遊学』 161, 勉誠出版, 2013)을 참조할 것.

14) 先日申上候通錦舎働強殊ニ小筒之鉄炮多所持仕候故錦舎者日本之御好ミ候間若武具なども被差渡候哉又者日本勢之後詰も候哉と朝鮮ニ日本之御様子承度休ニ御座候由申候事
錦舎今度之働強御座候故、呉三桂錦舎江為申間候者、今度之戰弥得勝利候は、朝鮮国支配可為仕と申候由、朝鮮国に伝承、錦舎儀者鄭氏に候故、朝鮮六姓之内に候由緒も有之間、若右之説実正に而も可有之候哉と氣遣申候、殊五六百年以前、積氏道說と申者御座候処、此者末世之儀書置申候書に、五百年程之後、鄭氏之者朝鮮をも支配仕事可有之由御座候、ケ様之儀に而も候半かと下々弥氣遣由申候事(『華夷変態』上(林春勝, 林信篤 編, 동양문고총간 제15, 동방서점, 1981, 135-136쪽).

15) 『숙종실록』, 숙종 2년 1월 13일

16) 조너선 클레멘츠, 『해적왕 정성공』, 허강 옮김, 삼우반, 2008, 418-423쪽.

조선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도선이 지었다는 다른 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인의 위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또한 정씨에 의해 조선이 멸망할 것이라는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17세기 후반에 존재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백승중은 1748년에 발생한 청주와 문의의 패서 사건에서 언급된 『도선비기』가 도선을 저자로 내세운 기왕의 예언서와 그 내용이 판이한 새로운 예언서라 한 다음, “기왕의 《도선비기》 등은 고려왕실의 성립, 융성, 또는 멸망과 조선 왕조에 의한 세력 교체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1748년에 문제가 되었던 《도선비기》에서는 조선의 멸망이 거론되었다”¹⁷⁾고 했다. 그러나 앞의 『화이변태』에 의하면, 이미 그보다 70여 년이나 빠른 1675년에 ‘조선의 멸망’을 거론한 도선의 예언서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더구나 이 1675년은 이러한 이야기가 왜관을 거쳐 막부에 보고된 연도이므로 도선의 예언서는 이보다 이전에 유포되었을 것이다. 『실록』에 정진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631년. 『실록』의 기록과 이 예언서 출현의 시간적 거리는 의외로 가까울지 모른다.

셋째 정경도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정씨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선의 예언서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경도 마침 정씨이므로 정말로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경도 새로운 정씨 왕조를 세우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682년(숙종 8) 발생한 노계신 고변사건의 심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갈 곳은 바로 鄭經의 나라입니다. 朝鮮을 鄭哥가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년은 바로 癸亥年인데, 옛날 仁祖大王이 나라를 빼앗아 즉위한 해입니다. 내년 4월이 바로 나라를 차지할 해입니다¹⁸⁾.

노계신이, 자기와 함께 유배생활을 하던 오시향이 정씨가 조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경의 타이완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노계신이 조작한 이야기지만, 앞에서 본 『화이변태』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정씨 속에 정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경은 1681년 1월에 죽었으니까 이 노계신의 고변이 있었던 1682년에는 타이완의 동녕왕국

17) 백승중,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2006, 133쪽.

18) 『推案及鞫案』 9, 「壬戌 盧繼信推案」, 500쪽. 해석은 김우철의 앞의 논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을 정경의 아들 정극상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무고사건에서도 정경을 이용할 정도로 당시 정경이 정진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정금에 대하여는 혹은 정지룡의 손자라 말하고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한다¹⁹⁾”는 『실록』의 기사처럼, 정경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다.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경을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소위 유명건의 옥을 취조한 1682(숙종 8)년 10월 27일의 기사이다. 유명건의 옥은 경신환국(1680)으로 몰락한 남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김석주가 어영대장 김익훈을 끌어들여 꾸민 옥사이다. 왕족인 낙서령 이수윤이 하는 말이다.

또 말하기를 정금(鄭錦)이 만약 50여 척의 배에 날랜 군사를 태우고 한강(漢江)에 바로 들어와서 영을 내리기를 「나는 백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라」고 하면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면, 백성들은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영접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불을 지를 것이니, 이어 변란을 일으키게 되면 비록 대신과 대장이 있더라도 달아나 숨기가 바쁠 터인데 누가 감히 손발을 놀릴 것인가? …… (중략) …… 수윤이 공초(供招)하기를, 정금(鄭錦)의 사건은 도청도설(道廳塗說)에 불과하니, 계책을 헤아려 생각건대 역시 근자의 인심을 말한 것뿐일 것입니다. 오시항(吳始恒)이 형벌을 받고 중도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남에게 무함을 받아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²⁰⁾.

정경이 한강에 나타나면 백성들이 이를 환영하고 그를 도와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 했다. 즉 곡식을 나눠주고 목숨만 보장해 준다면 정경이라 해도 백성들은 환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다음 정금의 사건은 뜬소문에 불과하지만 역시 최근의 민심을 말한 것뿐이라 했다. 이는 결국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조선왕조를 대신할 인물로 정경을 은근히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4. 정경의 아들과 해상진인

정경은 당시 사대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긴 정경의 침공설 때문에 조야가 그렇게 시끄러웠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남구만, 임수간,

19)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20) 『숙종실록』, 숙종 8년 10월 27일.

윤휴, 이공익 등이 문집에서 정경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익(李瀾, 1681-1763)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가 1758년 제자 안백순, 즉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 (1) 표해인 일기가 우리 집에 있다. 옛날 승지 이식이 제주목사였을 때 그들에게 속았다. 그 소위 변왕은 정지룡의 아들 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 (2) 근년에 옥에 갇힌 수인들이 인용하는 바, 해상진인이 또 정경의 아들이라 하는데 이는 모두 속이는 말이다.
- (3) 영력은 먼진(緬甸 버어마) 밖으로 도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삼계 등에게 잡혔는데 어찌 (영력) 21년의 달력이 있겠는가?21)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가 어렵다. 「영력피금(永曆被擒)」에 실린 아래 부분과 함께 읽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6년 뒤인 정미(丁未, 1667)에는 복건도(福建島) 사람 임인관(林寅觀)·진득(陳得)·증승(曾勝) 등 95명이 표류하여 대정현(大靜縣)까지 이르렀다. 그 당시 제주목사(濟州牧使)였던 이식(李植)의 집에 일기(日記)가 있는 것을 내가 얻어 보고 그때의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칭 변왕(藩王 제주국의 임금) 정성공(鄭成功)이라 하고 일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였다. 그 편지를 내보이고 또 영력 21년(1667)의 역서(曆書)로써 증거를 삼았는데 성공이란 자는 지룡(芝龍)의 아들이었다. 대명(大明)이 망한 후로 성공의 집안은 모두 도망쳐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고, 영력제가 사로잡힌 지도 이미 6년이나 되었는데 어찌 그의 역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속이는 말이 틀림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말로 여기니 웃을 만하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그것을 모두 이야기 거리로 삼으니 우리나라 풍속은 남의 말에 속는 것이 매양 이와 같다22).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편의상 번호를 붙여 설명하기로 하자. 먼저 (1)은 1667년 제주도에 표류한 임인관 이하 95명의 중국인을 제주목사였던 이식이 심문하여 표해인 일기를 작성했고 이 책이 자기 집에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식이 당시 표류민들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표해인 일기에 나오는 변왕에 대해서는 편지와 「영력피금」의 기술이 서로 다르다. 즉

21) 『星湖先生全集』卷 26, 「与安百順(戊寅)」
 漂海人日記。吾家有之矣。故承旨李植為濟州牧使時。為彼所瞞也。其所謂藩王者。指鄭芝龍之子經也。近世獄囚所引海上真人者。又經之子云。而都涉謬言也。永曆逃之緬甸之外。不數年為吳三桂等所擒。豈有二十一年之曆。

22) 『星湖僊說』 22권, 經史門 「永曆被擒」

편지에서는 번왕이 정지룡의 아들 정경이라 하고 「영력피금」에서는 정성공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정성공은 1662년에 죽었으므로 1667년이면 이미 정성공이 죽은 지 5년이나 지난 후이다. 따라서 이때의 번왕은 정성공이 아니라 정경이다. 그리고 정경은 정지룡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이며, 정성공의 아들이다.

(3)은 그 표류민들이 1667년을 영력 21년이라고 표기한 역서를 보여줬는데, 영력제가 잡힌 지 벌써 6년이나 지났거늘 어찌 영력이란 연호를 사용하는 달력이 존재할 수 있느냐며, 이는 그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보충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1667년의 표류민들은 자기들이 영력제를 모시는 정경이 다스리는 타이완에서 온 상인들이라며 일본이나 동녕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일본으로 보내는 편지와 영력 21년이라 쓰인 역서를 보여 주었는데, 이익은 영력제가 이미 6년 전에 잡혔으므로 이 달력이 가짜라고 생각한 것이다²³⁾. 실제로 영력제는 1661년 사로잡혀 1662년 오삼계에 의해 운남의 곤명에서 살해되었다²⁴⁾.

그렇지만 영력 21년이란 연호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씨 일가는 정성공이 영력이란 연호를 채택한 이래 타이완의 정씨 왕국이 망하는 1683년(영력 37)까지 쭉 영력이란 연호를 사용했다²⁵⁾. 즉 영력제가 죽어 남명의 황통이 끊긴 이후에도 21년간이나 이 연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1667년에도 정경의 동녕왕국은 당연히 영력 21년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2)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편지를 보낸 1758년 무렵 옥에 갇힌 죄수들이 정경의 아들이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죄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섬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조선을 없애고 새 왕조를 이룩한다는 해상진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역모와 관련된 사람들로 추측된다. 이 무렵의 역모 사건으로는 1748년(영조 24) 4월 청주와 문의에서 적발된 패서 사건과 1755년(영조 31) 2월 나

23) 이들이 이렇게 영력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청의 북경으로 소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자기들이 영력제의 백성, 다시 말해 남명의 백성임을 강조해야 명의 재조지은을 잊지 못하는 조선정부를 자극해서 북경이 아니고 일본이나 타이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돌아간 표류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1667년의 표류민들은, 바로 1년 전인 1667년 7월에 안추원 사건이 있었기에 모두 북경으로 압송되어 처형당했다. 자세한 것은 정응수의 「정성공 일가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 변화」(『일어일문학』 5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12)를 참조할 것.

물론 재야에서는 이들의 북경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이익이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도 오히려 그것을 모두 이야기 거리로 삼”는다고 했듯이, 이후에도 이 문제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다가 1798년 정조가 이 95명에 대해 봄, 가을 두 번 제를 지내라는 명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다.(『정조실록』, 정조 22년 7월 23일.)

24) 林田芳雄,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2004, 55쪽.

25) 진순신, 『중국의 역사』 11, 한길사, 1995, 22쪽.

주에서 발생한 패서 사건이 있다. 청주와 문의 사건 관련자들은 “비기에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온다”며 섬에 있는 세력의 지원을 받은 정진인이 새 왕조를 세울 것이라 주장했고, 나주 사건의 관련자들도 “비기 가운데 성세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에 배 1천 척을 낸다”는 말이 있다며, 해도에 거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경의 동녕왕국은 1683년에 멸망했고, 정경의 아들 정극상은 청에 귀순하여 북경에서 살다가 1717년 죽었다. 따라서 이익이 이 편지를 보낸 1758년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지 40여 년이나 지난 후이다. 그러므로 이익이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것처럼, 정경의 아들은 절대로 해상진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그들을 해상진인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익이 「해랑도(海浪島)」란 글에서 “해랑(海浪)은 섬 이름인데, 중국의 동북해 가운데에 있다. 명 나라 말기에 정지룡(鄭芝龍)의 무리들이 섬에 있는 도둑과 연결하여 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의 아들인 성공(成功)과 손자인 경(經)이 바다에 들어가자 우리나라에서까지 이를 걱정하게 되었으며 뜬소문으로 소동이 있을 적마다 반란자의 문초 가운데에서까지 말이 나왔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경(鄭經)이 바다섬을 점령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의 해랑선이라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는가?26)”라 한 것을 보면, 역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경 일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27). 즉 정경 일가는 실제 역사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해상진인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강렬한 해상진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5. 결론

조선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건국 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조선을 멸망시키는 주체는, 정씨나 승왕(僧王) 등이 거론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 특정되

26) 『星湖僊說』 2권, 天地門 「海浪島」

27) 사실 조선정부는 동녕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남중국 연안에서 활동하는 해적과 정경 일가와와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711년 조선통신사의 삼사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의 필담에서 남중국해의 해적에 관해 번갈아가며 질문을 해 해적의 수괴와 정경의 관계를 확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임수간, 『동사일기』, 『국역 해행총제』 IX, 민족문화추진회, 1977년, 236-237쪽, 264-265쪽).

한편 이익이 활동하던 18세기 중엽에는 정성공의 부하였던 정건의 후손들이 홍콩 주변을 근거지로 삼아 해적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윽고 이 정가 집단이 당시 남중국 연안을 주름잡는 해적들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이앤 머레이의 『그들의 바다 -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이영옥 옮김, 심산, 2003년, 104-107쪽)을 참조.

지는 않았다. 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 진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17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정씨로 고정되었는데, 정몽주, 정도전, 정여립 등 정씨 성을 가진 인물들의 반조선왕조적 상징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도선이 지었다는 예언서 등에 이씨 대신 정씨가 조선을 다스린다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조선왕조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때 마침 정경의 조선 침공설이 유포되면서 정경을 정진인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같은 정씨인데다 실제로 조선정부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력을 소유했기 때문이리라. 게다가 당시 조선을 대신 다스릴 정경의 타이완으로 망명하려 한다는 무고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 정경 진인설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경이 한강에 나타나면 백성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 영접하면서 변란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정경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로 해도가 주목을 받으며 정경의 아들이 해상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물론 이때 정경의 아들은 죽은 후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史實)과 상관없이 정경 일가가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이익의 「해랑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경 일가는 해상진인과 결합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해상진인이란 ‘남쪽 섬에서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정진인’이다. 그리고 정경 일가는 ‘남쪽에 있는 타이완 섬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곧 조선을 정벌하여 새로운 왕국을 만들 정진인’이다. 둘이 너무 딱 들어맞아서, 오히려 정경 일가를 보고 해상진인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경 일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해상진인으로 기억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성호선생전집』 권 26
『성호사설』 2권, 22권
『동사일기』
- 金剛一(2008), 「조선 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 29집, 190쪽.
- 김우철(2012),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真人) 수용 과정」, 『朝鮮時代史學報』 60호, 84쪽, 88쪽.
- 김탁(2005), 『정감록』, 살림, 68쪽.
- _____(2009), 『한국의 보물, 해인』, 북코리아, 157쪽
- 백승중(2006),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133쪽.
- _____(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40-242쪽.
- 정응수(2012), 「정성공 일가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 변화」, 『일어일문학』 55집, 대한일어일문학회, 439-440쪽, 445-446쪽.
- 한상권(1992), 「18세기 전반 명화적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497-498쪽.
- 浦廉一(1953), 「台湾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 『広島大学文学部紀要』 3, 74쪽.
- 林田芳雄(2004), 『鄭氏台湾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55쪽.
- 林春勝, 林信篤(1981), 『華夷変態』 上, 東方書店, 135-136쪽.
- 松本真輔(2013), 「韓国の予言書『鄭鑑録』と東アジアを駆けめぐった鄭經の朝鮮半島侵略説」, 『アジア遊学』 161, 勉誠出版, 140-141쪽.
- 진순신(1995), 『중국의 역사』 11, 한길사, 22쪽.
- 다이앤 머레이(2003), 『그들의 바다 -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이영옥 옮김, 심산, 104-107쪽.
- 조너선 클레멘츠(2008), 『해적왕 정성공』, 허강 옮김, 삼우반, 418-423쪽.

要 旨

これは海上真人と鄭経一家がどのような関係を持っていたかを究明したものである。朝鮮王朝が滅びるという予言は建国初期からあった。しかし、その主体はまだ特定されなかった。以後鄭氏に固定されたが、それは朝鮮に反感を抱いた人物の中に、鄭夢周や鄭道伝のように鄭氏が多かったからである。そしてこれが道詵の書いたと云われる予言書に、これから鄭氏が朝鮮を支配するという内容で収録され、朝鮮王朝に批判的な人たちの間に広まった。

ところで、折しも鄭経の朝鮮侵攻説が流布され、彼を鄭真人と思う雰囲気が形成された。同じ鄭氏であるうに、朝鮮政府を滅亡させるほどの実質的な武力を所有していたからであろう。そして、この鄭経真人説はかなり広がっていた。しかも、彼が漢江に現れると、百姓たちが歓迎するだろうという主張が出るほど、大きな人気を得ていた。

その後、国家権力の及ばない場所として海島が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り、鄭経の息子が海上真人だと主張する人々が出現した。もちろん、この時鄭経の息子はすでに死んでいた。しかし、彼らは、このような史実にこだわらず、鄭経一家が海上真人と主張していた。そして、このような主張は、民衆の間でかなり長く生きていた。

事実上、鄭経一家は海上真人になる最適の条件を備えていた。海上真人は「南の島で兵を起こして、朝鮮を滅ぼし新しい国を作る鄭真人」である。そして鄭経一家は「南にある台湾島で強力な軍隊を持っており、間もなく朝鮮を征伐して新王国を建国する鄭真人」である。あまりにもぴったりであって、鄭経一家を想像しながら海上真人を作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がするほどである。鄭経一家が歴史の舞台から消えた後にも、長く人々の間で海上真人として記憶されたのも、このためであろう。

キーワード：『鄭鑑録』、道詵、鄭真人、鄭経、朝鮮侵攻説、鄭経真人説、海上真人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